

(사)한국YWCA연합회 신년예배 · 사무총장 취임식

일시 : 2022년 1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 유튜브 중계



1922·2022



2022 YWCA 신년예배

인 도 원영희<(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연 주 아피 트리오
(피아노 윤유희 / 바이올린 오영주 / 첼로 이예진)

한국YWCA 100주년, 회원YWCA 기대와 바람 (영상)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이사야 60:1)

2022년도 새해, 한국YWCA가 100 주년이 되는 새해를 열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1922년에 YWCA를 세우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우리의 처음 마음을 담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찬 송 찬송가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1절) 다같이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말씀나눔1 YWCA 목적을 되새기며 기도문영상

1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YWCA 27주차 기도 | 생명 나눔 * 광주YWCA 작성

[주제] 받은 생명을 보존하고 나눔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웃과 생명을 나누지 않는다면 생명을 받고 보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 돌봄은 바로 나와 똑같은 귀중한 이웃의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돌봄의 구체적인 응답은 바로 나눔과 섬김입니다. 나눔의 절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실존의 최후이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 말씀: 요한복음 13 :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주제어: 받은 생명 보존, 나눔

▶ YWCA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체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생명 위기 시대와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금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YWCA 목적문답게 생명의 바람이 불어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 되게 하소서. 특히 한국YWCA는 10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는 기독교 시민 운동단체로서 목적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새로운 새 생명의 여성공동체인 YWCA로 일어서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2절) 다같이

옥도에 부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말씀나눔2 '정의'를 이루는 YWCA 기도문영상

1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YWCA 24주차 기도 / 노동 * 안산YWCA 작성

[주제]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환대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으며 땅을 다스리도록 그 안에 안배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노동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노동입니다. 인간의 생활은 매일 노동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에서 인간은 그 독특한 존엄성을 얻습니다. 성 베네딕트가 말한 것처럼 노동이 예배요 예배가 노동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몸소 목수로서 노동하셨고, 어부였던 베드로,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의 역할을 한 바울도 모두 노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으로 노동한 이분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와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높아지는 실업률과 양극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는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 여성노동자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임금 불평등은 더욱 심해집니다.

성서에서는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눅 10:7)"라고 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에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마 20:14)"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일하고 싶어도 아무도 일을 시켜 주지 않아서 일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노동권과 생존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동하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천명하고 그 존엄성과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들을 고발해야 합니다. 노동을 소중하게 여기고 노동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노동자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변화를 이끌어 인간과 사회의 참된 진보를 이루는 것이 한국YWCA의 책무일 것입니다.



▶ 말씀: 신명기 24:14-15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찬 송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1, 2절) 다같이

1.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2.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말씀나눔3 ‘새로운 100년, 평화의 도구’가 되는 YWCA 기도문영상

*1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YWCA 31주차 기도 / 평화의 도구 * 부산YWCA 작성*

(주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도구로 함께하는 YWCA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후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건넨 인사는 “샬롬(shalom)”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과 기근, 고통과 근심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은 죄 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오는 안전하고, 조화롭고, 평온하며 만족스러운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평화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한국YWCA도 우리가 속한 삶의 전 영역에서 진정한 평화를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 말씀: 이사야 53:4-19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 주제어: 진정한 평화의 간구

▶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힘을 주시고 워드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 시대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하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YWCA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게 하소서. YWCA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YWCA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몸소 실천하고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YWCA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찬양 평화의 기도 신호진 교수(소프라노, 한양대학교)

헌신의 기도 이유림(서울YWCA 회장)



찬 송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3절) 다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공동 기도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9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특별 연주 축복송 아띠 트리오
(피아노-윤유희, 바이올린-오영주, 첼로 -이예진)

신년 시 시, 김재화(명예연합위원) / 낭송, 오영란(실행위원)



구정혜 사무총장 취임식

사 회 원영희<(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내빈소개

원영희 회장

신임사무총장 소개

원영희 회장

취임인사

구정혜 사무총장

축하와 기대의 말씀(영상)

송인동(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서다미(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
김성이(연합회 실행위원, 진주YWCA회장)
김지숙(제주YWCA 사무총장)
손지수(연합회, 로컬프렌들리 실무활동가)

격려의 말씀

한영수(사회복지법인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축복의 노래

생명의 사람, 에스더

신효진 교수(소프라노, 한양대학교)

꽃다발 전달

장세영(연합회 실무활동가)



구정혜 사무총장 약력

학력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 석사

YWCA 경력

1997년 1월 대한YWCA연합회 간사
2004년 1월 행정위원회 부장
2008년 1월 기획위원회·프로그램 총괄 부장
2010년 2월 행정위원회·사무행정 총괄, 후원회 사무국장
2011년 2월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복지사업단 총괄 국장
2014년 8월 은학의 집 관장 대행
2019년 3월 한국Y조직재구조화, Y거버넌스 연구 특임 업무 수행
2020년 8월 조직혁신실행국 국장
2021년 5월 연합회 법인 사무행정 총괄 국장

외부 경력

(전) (주)정·식품 홍보실 사원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국 및 편집국 주임

(전) 택배소비자위원회 위원
(전) 한국소비자원 CCM 평가위원
(현)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



이제는 상쾌한 공기로 구름 위로 날아올라

김재화

새해의 시작은 또다시 희망을 안고 설레이하는 날
막 지남해 우리는 이미 반짝이는 은총의 별빛으로
걱정 뒤에 숨어 엄습했던 두려움 가라앉혔으니

새해는 잊혀진 작은 행복의 모습들 챙겨 담고서
하나하나 환한 빛으로 꽃피게 하리

말없이 이어가는 순종이 삶의 미덕처럼 좋아 보여도
비겁한 침묵으로 새로운에 안기지 못하리니

두 해 넘어 지구를 덮은 큰 걱정 사라지게
이제는 상쾌한 공기로 구름 위로 날자 훨훨~